

동물-타자에 대한 실코의 스토리텔링에 나타나는 포스트휴머니스트적 윤리-정치성

정진만
(중앙대학교)

I. 서론

북미원주민 문학의 작가이자 비평가인 제럴드 비즈너(Gerald Vizenor)에 따르면, 레슬리 마몬 실코(Leslie Marmon Silko)는 『의식(Ceremony)』(1977)에서 들풀, 바람, 산봉우리, 화산암, 눈의 직유를 통해 퓨마를 재현함으로써 “자연적 특성”(a *natural* character)을 동원해 동물을 창조해낸다(675). 그리고 북미원주민들은 그런 자연, 동물과 밀접한 존재가 된다(Vizenor 667). 비즈너의 언급을 고려하면, 실코는 『의식』에서 자연과 분리될 수 없는 대상으로서의 동물과 북미원주민을 그림으로써 인간 일반이 이런 동물과 어떻게 마주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묻는 듯하다. 그런데 실코의 『의식』에 대한 그 동안의 논의들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폴 비크만 테일러(Paul Beekman Taylor)는 인간과 “동물과의 소통”(communication with animals)을 실코의 『의식』의 중심주제들 가운데 하나라고 손꼽았지만, 그마저도 그것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진 않았다(224). 한 편 브라이언 K. 허드슨(Brian K. Hudson)은 2013년에 “동물연구”(Animal Studies)를 특집주제로 다룬 저널 『미국 인디언 문학 연구

(*Studies in American Indian Literatures*)』의 소개 글에서 “비록 새로운 생각처럼 보이겠지만, 많은 북미원주민의 사고가 인간을 인간이 아닌 동물과 전적으로 다르다거나 우월하다고 규정하지 않는다”(Although seemingly a novel notion, many Native ideologies do not define humans as categorically different from or superior to nonhuman animals)(3)고 말하면서, 흔히 그동안 간과되어왔지만 북미원주민 문학은 동물연구(animal studies scholarship)를 위한 이상적인 분야라고 강조한다(3-4). 따라서 실코의 『의식』이 인간과 동물의 관계, 혹은 동물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빈곤하고, 다른 한 편으로 동물연구와 북미원주민 문학의 연관성을 연구해볼 필요성이 최근에 제기되고 있다는 맥락에서, 이 글은 필자가 보기에 동물을 중요한 소재로서 다룬 실코의 『의식』과 『스토리텔러(*Storyteller*)』(1981)를 대상으로, 그녀의 스토리텔링이 동물과 인간의 관계의 측면에서 소통과 교감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그것의 의의가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일찍이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이 「스토리텔러(*The Storyteller*)」(1936)에서 스토리텔러와 청자간의 소통가능성과 친밀성을 언급했듯이(86, 100), 일반적으로 스토리텔링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김호연 34; 이민용 127, 129; Lincoln 223). 필자는 여기에서 실코가 『의식』과 『스토리텔러』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인간 상호간의 공감과 더불어 포스트휴머니스트적¹⁾ 감성으로 동물-타자에 대한 우리의 공감

1) 이 글에서 언급되는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은 케어리 울프(Cary Wolfe)가 『포스트휴머니즘이란 무엇인가?(*What Is Posthumanism?*)』에서 사용하는 용어, 즉 휴머니즘의 인간중심주의를 탈중심화시키려는 사유를 의미한다. 울프에 따르면, 최근 포스트휴머니즘 혹은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이라 일컬어지는 운동은 조엘 가로(Joel Garreau)가 정의한 포스트휴머니즘, 즉 “인간의 지적, 육체적, 감정적 능력의 향상, 질병과 불필요한 고통의 제거, 그리고 수명의 극적인 연장”(the enhancement of human intellectual, physical, and emotional capabilities, the elimination of disease and unnecessary suffering, and the dramatic extension of life span)(Wolfe xiii에서 재인용)을 추구하는 진화주의적 운동을 지칭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트랜스휴머니즘(혹은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동물의 이분법에 기초해 인간 내부의 동물적 기원을 억압하거나 초월하여 인간의 자율성(autonomy)을 확보한다는 환상을 지니며, 휴머니즘에 뿌리를 두고 있다(xiv-xv). 따라서 울프는 기존의

과 소통가능성을 도모하며, 그럼으로써 그동안 존재해온 동물-타자에 대한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인간우월주의(human chauvinism),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를 넘어설 가능성을 그린다는 점을 주장하려 한다. 실코는 인간/동물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상호교감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을 통해, 인간과 동물의 범주란 무엇인지의 존재론적 질문과 함께, 타자화된 동물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를 윤리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오랜 세기 동안 굳어져온 인간중심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할 비전을 북미원주민의 스토리텔링의 전통과 그것의 변형²⁾ 안에서 모색하는 것이다.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실코의 심문은 과거사에서 드러난 억압—북미원주민 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한 억압—에 대한 고발과 저항의 정치적 목소리이며, 동물에 대한 공감과 포용을 요구하는 윤리-정치적 스토리텔링(ethico-political storytelling)이 된다.

II. 동물의 고통과 죽음의 재현에 나타나는 타자와의 공감

『의식』에서 실코는 주인공 타요(Tayo)가 가뭄으로 고통 받는 동물과 교감하는 것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2차 대전에 참전한 타요는 사촌 록키(Rocky)가 비 때문에 상처가 마르지 못하고 고통 받아 죽어가는 것을 보며 비를 저주한다. 뉴멕시코 주 라구나(Laguna)로 귀향한 타요는 자신의 저주 때문에 그 지역이 6년간 가뭄이 들었다고 여기며 죄책감에 시달린다. 타요는 들풀이 누렇게 말라죽어 먹을 것이 없자 농장의 노새와 염소들이 비쩍 마르고 고통 받

휴머니즘을 반복하고 있는 진화주의적이고 인간중심주의적인 트랜스휴머니즘(포스트휴머니즘)과 정반대되는 의미로서의 포스트휴머니즘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인간/동물의 이분법적 위계질서 구축과 동물에 대한 억압의 문제를 다루는 이 글은 “포스트휴머니즘”에 대한 울프의 정의를 따른다.

- 2) 블랑카 쇼흐트(Blanca Schorcht)는 『북미원주민 텍스트의 스토리화된 목소리들 (Storied Voices in Native American Texts)』에서 실코를 포함한 동시대의 다른 북미원주민 문학 작가들이 유럽 문학이나 주류 북미문학의 스타일을 단순히 모방하고 재생산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북미원주민의 구술적인 스토리텔링 전통을 글쓰기 형식으로 옮기며 이들의 관점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고 언급한다(5). 또한 루이스 K. 바넷(Louise K. Barnett)과 제임스 L. 소손(James L. Thorson)을 참조하라(1).

는 것을 본다. 타요는 옥수수를 먹는 노새의 혀가 그것을 다 먹자 자신의 손의 짠 소금기마저 핏는 혀의 따듯함을 느끼며 울컥한다. 타요의 손과 노새의 혀라는 두 살(flesh)이 서로 접촉하는 순간, 타요는 굶주린 동물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다.

타요는 커피 강통에 손을 뻗었고 노새의 떨리는 입술 밑에서 옥수수를 움켜쥐었다. 옥수수가 모두 바닥나자 노새는 그의 손에서 소금기를 핏었다. 노새의 혀는 거칠었고 축축했지만 따듯했고 손가락들을 빈틈없이 핏아 내렸다. 타요는 노새의 입에서 더듬이처럼 자란 길고 하얀 털들을 쳐다보고는 또다시 목이 메었다. 그는 노새들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그가 저질렀던 행동 때문에 울음을 터뜨렸다.

Tayo reached into the coffee can and he held some corn under the quivering lips. When the corn was gone, the mule licked for the salt taste on his hand; the tongue was rough and wet, but it was also warm and precise across his fingers. Tayo looked at the long white hairs growing out of the lips like antennas, and he got the choking in his throat again, and he cried for all of them, and for what he had done.
(14)

실코는 또한 백인의 폭력에 의해 상처받은 동물-타자를 보며 분노하고 그 고통 받는 대상과 깊이 교감하는 감수성을 타요에게 부여한다. 작품의 말미에 타요는 외삼촌 조사이어(Josiah)가 잃어버린 소 떼를 마침내 되찾는데, 이 소 떼 가운데 어떤 소가 텍사스 카우보이들이 즐기는 “텍사스 올가미”(Texas roping) 게임에서 살갓이 벗겨졌던 것을 본다(212). 타요는 소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죽이는 결과도 가져오는 텍사스식 올가미 게임을 예전에 본 기억을 되뇌며 분개한다. 그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잔인한 행위를 스포츠로 간주해 즐거움을 누리는 백인들의 “도착”(perversion)에 할 말을 잃는다(213). 이런 타요의 분개는 동물-타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실코는 『의식』과 『스토리텔러』의 여러 곳에서 동물의 고통뿐만 아니라, 동물의 죽음에 대한 애도, 동물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그려낸다. 타요는 어릴

때, 사냥감이 되어 죽어가는 사슴을 어루만지게 된다. 선홍색 피가 콧구멍에서 흐르며 여전히 젖어 있었는데, 타요는 그런 사슴의 큰 귀를 어루만지며 따듯함을 느낀다. 타요는 그 온기가 오래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 사슴의 코는 점점 딱딱해져갔고 귀는 뻣뻣해졌다(50). 여기에서 타요는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슴의 살을 어루만지며 고통을 함께 느낀다. 록키가 칼로 사슴의 배를 가르려하자, 타요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사슴의 머리에 덮어준다. 록키는 왜 그렇게 했냐고 타요에게 묻지만, 사실 둘 모두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존경에서 비롯된”(Out of respect)(51) 암묵적인 의식(ceremony)인 것이다.

비록 “동물을 죽이는 것에는 그 어떤 존중의 방식도 존재하지 않는다”(there is no longer any respectful way to kill an animal)(Womack 12)며 동물살해 금지를 엄격히 주장하는 동물권리 옹호론자는 아닐지라도, 실코는 동물에 대한 의식의 재현에서 동물도 영혼을 지닌 존재라는 탈인간중심주의적 사고를 보여준다. 타요의 의식은 북미원주민이 동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고, 즉 동물이 영혼을 지닌 존재라는 생각을 잘 반영한다. 타요의 서술에 따르면, 이 사슴의 사체를 처리할 때, 외삼촌 조사이어와 이모부 로버트가 사슴의 코에 옥수수가루를 뿌린다. 이것은 이들이 사슴을 인간처럼 영혼을 지닌 존재로 여기는 마음에서 이 동물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을 뜻한다. 인간의 실존을 사유하는 형이상학의 중심에 위치한 마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에 따르면, 동물은 “아예 세계를 지니지 못한”(weltlos, without world) 돌맹이보다는 낫지만, “세계 안에서 빈곤하기에”(weltarm, poor in world), “세계를 형성해가는”(weltbildend, world-forming) 인간과 같은 영혼을 가지지 못한 결핍의 존재이다(Derrida, *Of Spirit* 12; Lawlor 51-52). 이에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는 동물을 인간의 세계와 양적, 질적 기준에 따라 비교해 폄하하는 하이데거를 비판하면서, 동물도 분명 나름대로의 세계를 지니고 있고 동물의 빈곤은 절대로 인간의 척도에서 판단될 수 없는 차이를 지닌다고 강조한다(Lawlor 52). 데리다는 “동물이 어떤 세계를 분명히 가지며, 따라서 어떤 영혼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다”(the animal must certainly have some world, and thus some spirit)라고 강조한다(*Of Spirit*

48). 데리다는 동물 존재의 특이성(singularity)을 배제하고 인간만이 온전한 영혼을 지닌다고 보는 하이데거적 인간중심주의를 심문한다. 데리다의 사유와 유사하게, 실코는 타요, 조사이어, 그리고 로버트의 적절한 애도의 의식 속에서 동물이 인간보다 하위의 저급한 사물적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존중과 사랑, 그리고 감사의 대상”(their love and respect, their appreciation) (*Ceremony* 51)임을 보여준다. 『스토리텔러』에서도 라구나 인디언 사냥꾼들은 사냥으로 잡은 사슴의 영혼을 위해 사슴춤(the Deer Dance)을 추며 “공경과 감사”(reverence and appreciation)(*Storyteller* 191)의 의식을 치른다.

하지만 『의식』에서 인디언 보호구역을 벗어나 백인들의 대학에 다니면서 그들의 과학적 사고방식을 교육받고 백인사회에서 미식축구선수로서의 성공을 꿈꾸던 “록키는 인디언의 이런 전통적 방식들을 고의적으로 회피했다”(Rocky deliberately avoided the old-time ways)(51). 조사이어와 로버트가 사슴의 사체를 집에 가져와 나바호 담요 위에 누인다. 할머니는 사슴의 목에 터키옥석 고리를 걸어주고, 조사이어는 사슴의 코에 넣어줄 옥수수가루를 준비한다. 이런 인디언 의식을 지켜보는 록키는 가족들의 행위를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그는 따뜻한 방바닥에 죽은 사슴을 놓으면 고기가 상한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말해주고 장작헛간에 사슴을 매달아 고기를 시원한 상태로 두고 싶어 한다. 백인의 학교에서 과학을 배워 과학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록키에게 사슴은 영혼을 지닌 존경의 대상이라기보다 단지 “고깃덩이”(meat)에 불과하다(52). 하지만, 타요의 서술에 따르면, “모든 북미원주민들은 비록 그들이 일요일에는 미사에 가는 가톨릭신자라 할지라도 사슴에 대한 의식을 모두 따르고 있다”(All the people, even the Catholics who went to mass every Sunday, followed the ritual of the deer)(52).

동물-타자를 아끼고 존중하며 교감하는 것의 중요성은 실코가 외삼촌 토니(Tony)의 염소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해줄 때도 잘 드러난다(*Storyteller* 171-76). 실코가 어렸을 적 외삼촌 토니는 한 백인에게서 산 수염소(billy goat)를 애지중지했는데, 심지어 그는 염소에게 말을 걸기도 했다. 그런데 동네 꼬마들은 활과 화살을 만들어 그 염소를 겨냥해 쏘며 괴롭혔다. 그러자 토니는 염소에 대한 꼬마들의 폭력적 행위를 제지하면서, “동물은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면 그들도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they won’t bother you unless you bother them)(*Storyteller* 174)고 말한다. 『의식』에서 타오는 자신이 제대로 말을 통제하지도 못해 화가나 말에게 돌을 던지자 외삼촌 조사이어가 동물에 폭력을 가하는 것의 어리석음을 가르친 것을 회상한다(193). 토니와 조사이어 모두 동물-타자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고 동물을 존경하는 열린 존재들이다. 조사이어의 가르침의 영향을 받은 타오는 퓨마의 발자국에 꽃가루를 뿌려주며 존경의 마음을 표시한다(196). 피터 G. 베이들러(Peter G. Beidler)에 따르면, 타오는 주술사 베토니(Betonie)를 만나 만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에 대한 가르침을 배운 이후 곤충 같은 미물에까지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는 점을 지적한다(16). 앞서 언급했듯이, 퓨마를 단지 재미로 죽이는 사냥감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텍사스 백인 농장 경비자들은 타오의 이런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

동물-타자와 인간의 교감에 대한 실코의 재현은 동물이 인간을 사랑하는 모습까지 보여줌으로써 특이성을 띤다. 『스토리텔러』에 실린 「사슴의 노래(Deer Song)」는 타자인 동물의 시점에서 스토리가 진행되는데, 상처를 입은 사슴이 죽어가며 인간에게 이렇게 말한다. “제가 죽을 때 비명을 지르더라도 당신은 제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기면 안돼요”(Do not think that I do not love you / if I scream / while I die)(201). 여기에서 실코는 사슴을 사냥감으로만 인식하는 사람들의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 사슴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인간에 대한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실코는 동물-타자의 고통과 죽음을 목격하는 것에 따른 고통의 심경 뿐 아니라, 동물-타자에 대한 존경, 그리고 그런 동물-타자가 인간에게 갖는 사랑을 이야기함으로써, 인간중심주의의 편협성을 넘어서서 동물-타자와의 공감의 가능성을 연다.

III. 식민주의와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포스트휴머니스트적 저항의 목소리

동물-타자와의 공감의 가능성을 여는 실코의 스토리텔링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보면 북미원주민 뿐만 아니라 동물(자연)에 대한 억압을 고발하는 저항적 정치성과 분리되어 이해될 수 없다. 실코는 『의식』에서 자연(동물)적 타자와 인간의 조화, 균형, 교감을 강조하면서, 특히 백인들이 북미원주민들의 토지를 빼앗고 동물과 대지를 파괴해온 미국의 상흔의 역사를 이야기한다(185-86). 주인공 타요가 속한 라구나 푸에블로(the Laguna Pueblo) 원주민들은 그들의 토지 대부분을 백인들에게 빼앗긴다. 이들의 나머지 땅도 국유림지와 주 소유가 되어 이후 1900년대 초에 텍사스에서 온 백인 농장주들에게 되팔린다. 그러자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벌목회사가 고향한 백인 벌목꾼들의 개발에 의해 그 땅이 파괴쳐지고 그 땅에 살던 동물들이 백인 사냥꾼들에 의해 무수히 죽임을 당한다. 대지와 동물의 파괴자인 백인들에 대한 타요의 비판은 텍사스 농장 경비자들이 퓨마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것을 비난하는 어조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거기에 누워 그들을 증오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에게 하고자 했던 것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기계를 이용해 이 땅에 저질렀던 짓과 사냥개 무리와 총으로 동물들에게 했던 짓 때문이었다”(He lay there and hated them. Not for what they wanted to do with him, but for what they did to the earth with their machines, and to the animals with their packs of dogs and their guns)(Ceremony 203). 북미원주민 성직자들은 대지와 동물에 대한 폭력 때문에 이 땅이 가뭄으로 메마르고 혹독한 시련의 시기가 올 것을 경고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라구나 원주민들의 시련에 대한 실코의 재현은 미국의 백인들이 대지와 동물, 원주민을 공존과 공감의 대상이 아닌 파괴적 정복의 대상으로 삼아온 자국 내 식민주의 역사를 기억해내는 비판적 스토리텔링이다.

이런 식민주의 비판의 역사적식과 정치성을 드러내는 실코의 스토리텔링이 현대의 포스트휴머니스트적 사유와 맞닿아 있음에 주목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 왜냐하면 포스트휴머니스트적 논의들은 동물에 대한 윤리적 태도의 필

요성을 강조하고 기존의 인간중심주의가 자초한 동물-타자에 대한 폭력을 역시 비판적으로 사유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데리다는 인간중심주의적인 서구형이상학에서 굳어져 온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이제 존재론적으로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변화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현대 산업의 육류 대량생산 체제나 동물실험 등에서 발생하는 동물에 대한 가혹한, 폭력적 취급을 비판한다 (“Violence” 64). 포스트휴머니즘의 맥락에서 『의식』과 『스토리텔러』를 바라보면 동물-타자에 대한 실코의 재현이 지닌 윤리의식은 보다 분명해진다.

동물-타자에 대한 윤리의 측면에서 실코의 스토리텔링과 현대 포스트휴머니스트적 논의들의 연관관계를 다루기 전에, 실코와 포스트휴머니즘이 각각 비판하고 있는 식민주의와 휴머니즘이 음험한 공모관계를 가져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건국이후, 모든 인간 주체는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휴머니즘과 민주주의의 이상을 건설하려 했으나, 오랫동안 북미대륙 안에서 식민주의, 인종주의, 남성중심주의를 통해 북미원주민, 흑인노예를 비롯한 다양한 유색인종과 소수민족, 그리고 여성을 온전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법의 보호의 테두리에서 배제해왔다. 데리다에 따르면, 휴머니즘이 떠받드는 인간의 “주체성”(subjectivity)은 여성들, 아이들, 다양한 소수민족들, 그리고 동물을 타자화해서 법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희생시키는 폭력에 의존한다(“Force of Law” 18; Calarco 131). 데리다는 이런 휴머니즘의 인간중심주의에 내재한 폭력, 혹은 타자에 대한 존중의 결여, 부정(injustice)을 “카노팔로고센트리즘”(carno-phallogocentrism)(“Force of Law” 19)이란 신조어로 지칭하고 있다. 데리다보다 훨씬 이전에 앙드레 브레통(André Breton), 르네 크르벨(René Crevel)을 포함한 프랑스의 초현실주의자 그룹은 1932년의 「살인적인 인도주의(Murderous Humanitarianism)」라는 글에서 휴머니즘의 이름으로 자행된 식민주의를 성직자들, 박애주의자들의 위선을 통해 고발하고 비판했다.³⁾ 비슷한 맥락에서, 로빈 D.G. 켈리(Robin D.G. Kelley)도

3) The Surrealist Group of France, “Murderous Humanitarianism,” <http://archives.econ.utah.edu/archives/marxism/2002w44/msg00050.html>. Web.02.25.2014: “성직자들과 직업적인 박애주의자들은 이 피비린내 나는 착취를 위해 늘 군대와 협력해왔다. 자연이 주는 이득에서 마지막 푼돈까지 움아내는 식민주의 체제는 즐겁게 규칙적으로 도끼질과 함께 망치질을 해댄다. 백인은 설교하고 약을 주고 예방접종을

“근대 서구의 토대가 된 바로 그 휴머니즘이 노예제도, 식민주의, 인종 대량 학살을 정당화했다”(the very humanism upon which the modern West was built also justified slavery, colonialism, and genocide)(19)고 지적한다. 이처럼 휴머니즘과 식민주의의 음험한 밀월관계 혹은 아이러니를 염두에 둘 때, 동물의 고통과 죽음을 이야기하며 식민주의를 비판하는 실코의 역사의식과 정치성은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포스트휴머니스트적 사유와 분리되어 이해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포스트휴머니스트적 사유의 맥락 속에서 동물의 고통과 죽음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동물의 고통과 죽음은 서구의 철학자들도 역시 다루어 온 문제인데, 인간이성중심주의적 형이상학자들은 동물의 고통에 회의적이고, 동물의 죽음이 인간의 죽음보다 저급한 차원의 것이라 간주해왔다. 동물의 고통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는 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에게서 잘 드러난다. 그는 『방법서설(*Discourse on Method*)』(1637)에서 동물을 인간이 지닌 이성(reason)과 지각(sense)이 없는 기계와 같은 대상으로 간주한다(112). 그에 따르면, 동물은 인간의 언어가 없고 사고할 줄 모르기에 그것이 지닌 성향(disposition)에 따라 움직일 뿐인 “자동인형이나 움직이는 기계”(automatons, or moving machines)(139)에 불과하다. 데카르트는 심지어 동물을 태엽을 감아 움직이는 시계(a clock)에 비유함으로써 동물이 쾌(pleasure)나 고통(pain)을 느낄 줄 모르는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 현대에도 영국의 철학자 피터 캐루더스(Peter Carruthers)는 데카르트처럼 동물을 “자동인형들”(automata)(56)로 간주하며 동물은 지각이 없기에 고통도 느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애벌레를 침으로 찌르면 꿈틀거리는데, 이것은 단지 침에 대해 민감한 신경이 근육을 움직이게 하

하고 비열하게 죽이며 (스스로에게서) 면죄를 받는다. 그들은 찬송가와 설교로, 그리고 자유, 평등, 형제애를 보장한다는 약속으로, 그들의 기관총 소리를 감추려한다”(The clergy and professional philanthropists have always collaborated with the army in this bloody exploitation. The colonial machinery that extracts the last penny from natural advantages hammers away with the joyful regularity of a pole ax. The white man preaches, doses, vaccinates, assassinates and (from himself) receives absolution. With his psalms, his speeches, his guarantees of liberty, equality and fraternity, he seeks to drown the noise of his machine guns).

는 것에 불과하다(57). 그러므로 그는 동물의 고통을 참작해 동물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공리주의에 반대한다.

이들의 입장의 맞은편에서, 동물의 고통에 대해 거론하면서 동물이 고통 받지 않을 권리를 도덕적 차원에서 맨 처음 생각한 철학자는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이다. 벤담은 동물이 단지 사물처럼 취급당하고, 많은 인간이 그런 동물처럼 취급받는 것에 대한 슬픔을 토로했는데, 그에겐 인간이나 동물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가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Calarco 116). 벤담은 대상에 어떤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하는 윤리적 기준이 이성의 능력, 담화의 능력이라기보다 고통 받을 수 있는 능력이어야 한다고 언급한다(Bentham 311n1). 이처럼 벤담의 공리주의 틀 안에서 동물의 고통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

데리다도 동물이 고통 받을 수 있다는 벤담의 사고에 동의한다(“The Animal” 396; “Violence” 70; Lawlor 70). 그러면서도 데리다는 “그들이 고통 받을 수 있는가?”(Can they suffer?)라는 벤담의 질문을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함으로써 새로운 윤리적 가능성의 길을 연다. 데리다는 동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capacity)의 문제가 동물 윤리학(animal ethics)의 궁극적 토대가 아니라 동물의 유한성(finitude), 취약성(vulnerability)을 드러내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⁴⁾ 데리다에 따르면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 “가능성”(possibility)보다는 그 고통을 피할 수 없는 “무능력,” “불가능성”(impossibility)에 직면한다. 데리다는 벤담의 질문, 즉 “그들이 고통 받을 수 있는가?”의 질문에서 동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어떤 힘(power)이 아니고 힘이 없는 어떤 가능성, “불가능성의 가능성”(a possibility of the impossible)임을 지적한다. 여기에서 데리다는 더불어 죽음(mortality)도 고통처럼 힘이 없음의 가능성과 관계되며, 인간은 동물과 이런 점들을 공유한다고 본다.

4) 울프도 인간이 동물과 유한성, 취약성을 공유한다는 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인간이 동물에게 공감하는 점이 데리다의 동물 윤리학의 핵심이라고 언급한다(“Flesh and Finitude” 24).

고통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어떤 힘이 아니라, 힘이 없을 수 있다는 가능성, 불가능성의 가능성이다. 죽음은 우리가 동물과 나누는 유한성을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철저한 방식으로 바로 거기에 있다. 이 죽음은 삶의 유한성, 연민의 경험에 속하며, 이 무력함의 가능성, 즉 불가능성의 가능성, 취약성에 따른 고통, 고통에 취약함을 공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속한다.

Being able to suffer is no longer a power, it is a possibility without power, a possibility of the impossible. Mortality resides there, as the most radical means of thinking the finitude that we share with animals, the mortality that belongs to the very finitude of life, to the experience of compassion, to the possibility of sharing the possibility of this nonpower, the possibility of this impossibility, the anguish of this vulnerability and the vulnerability of this anguish. (“The Animal” 396)

기존의 형이상학적 전통 속에서 하이데거는 죽음을 현존재(*Dasein*)에 도달하는 인간만의 특권적 사건으로 간주해, 동물/인간 사이에 심연 같은 차이의 경계를 긋는 인간중심주의를 보여준다. 하이데거에게서 동물은 무언가를 잡을 수 있는 기관(*the prehensible organs*)은 있지만 인간의 손(*hand*)이 없어 수집(*gathering*)—로고스(*logos*), 언어를 통해 현상학적인 어떤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What Is Called Thinking?* 16). 그가 보기에 이성적 사고(*thinking*)는 손의 작업(*Handwerk, a work of the hand*)인데, 동물은 이 손이 없는 결핍의 존재이기에 현전하는 과거를 수집(*gathering*)해 회상(*memory*)할 수 없고, 로고스와 언어를 통해 사고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현상학적인 본질, 진리의 드러남(*aletheia, the unconcealment of truth*) 같은 것에 도달할 수단이 없다(Derrida, “*Geschlecht II*” 173-75, 182). 특히 동물은 존재의 문제를 제기해볼 수 있는 계기로서의 “죽음”이 지닌 본질에 접근할 수단이 없다(Lawlor 45-50).

데리다에 따르면,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Being and Time*)』에서 동물은 인간처럼 “적절하게 죽는 것”(eigentlich sterben, properly dying)이 아니

라 다만 “사라져 갈”(verenden, perishing)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이데거는 동물이 접근할 수 없는 인간 현존재(Dasein)의 유한성의 양상이 바로 죽음(demise)이라고 여기는데, 이에 대해 데리다는 하이데거의 인간/동물 구분이 독단적이며 충분한 과학적, 존재론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한다(Aporias 32). 데리다에 따르면, 인간 현존재가 죽음의 가능성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불가능성”으로서의 죽음의 가능성, 즉 인간이 사자(the dead)의 세계로 통과해 갈 수 “없는” 경계로서의 아포리아(aporia)에 직면해야만 가능하기에 인간은 죽음의 가능성을 진실로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결함과 취약성을 지닌다.⁵⁾ 인간은 이런 결함 때문에 진실로 “거기에”(Da, there) 존재하지—현존재(Da-sein)에 이르지—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죽을”(eigentlich sterben, properly dying) 수 없는 인간은 죽음과 관련해 동물의 유한성, 불가능성을 공유한다(Lawlor 54, 69). 인간 모두는 “세계 안에서 빈곤한 것이다”(poor in world). 달리 말하면, 하이데거에게서 죽음이라는 불가능성은 동물과 같은 다른 존재들로부터 인간을 차별화하고 경계를 그어 현존재를 낳는 “가능성”이지만(Derrida, Aporias 63-64), 데리다에게서 죽음은 그런 현존재를 “불가능하게 하는” 가능성이 된다(Aporias 70-71). 죽음이라는 “불가능성의 가능성”의 문제에서 하이데거와 달리,⁶⁾ 데리다는 가능성에서 “불가능성”으로 무게의 중심을 전환시켜 인간중심주의를 해체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매튜 칼라코(Matthew Calarco)는 하이데거의 경우처럼 빈번히 철학자들이 동물을 인간의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인간에게만 독특하게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특성이나 능력들을 구축해내는 인간중심주의의 한계를 지녀왔다고 지적한다(22, 138).

-
- 5) 리처드 비어즈워스(Richard Beardsworth)에 따르면, 데리다는 자아(ego)가 자신의 죽음을 경험할 수 없기에 죽음이 자아의 지평 너머에 있음을 강조한다(130-31). 울프에 따르면, 하이데거는 죽음이라는 경계, 한계(limit)를 전유하지만, 데리다는 죽음이 인간의 유한성을 노출시키는 사건이며 역설적으로 이런 유한성과 불가능성 속에서 정의(justice)가 가능해지는 것을 말한다(“Flesh and Finitude” 26).
- 6)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죽음이 갖는 “불가능성의 가능성”은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능성이지만 그럼에도 동시에 피할 수 없는 가능성”을 의미한다(박서현 186참조). 하이데거의 철학에서 죽음은 본래적 실존의 가능성을 회복케 하는 현존재를 깨닫게 해주는 “가능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동물의 고통과 죽음을 마치 인간 자신의 것인 것처럼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그리는 실코의 재현은 인간/동물의 위계적 대립구조 안에서 고통과 죽음을 오로지 인간만의 것이라 간주해 인간의 고유성을 획득하려는 인간중심주의적 시선에서는 이해되기 어려운 스토리텔링이다. 이런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탈중심화는 동물-타자의 응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인간중심주의의 ‘시선’을 넘어서려는 실코의 포스트휴머니스트적 시도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타요는 할머니가 태곳적 이야기들을 들려주던 것을 기억하며, 물웅덩이 위 바위틈새에서 잠을 자다 나온 개구리들을 발견한다. 이 개구리들도 타요를 응시하고, 이에 타요는 웃는다(95). 이 개구리는 단순히 인디언 보호구역의 백인 선생님이 매년 과학시간의 해부학실습 대상으로 삼는 개구리가 아니다(195). 타요는 물웅덩이에 잠자리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잠자리에 관한 스토리가 있었던 것도 기억해낸다. 여기에서 타요는 스토리들로 이루어진 세상이 도처에 존재함을 깨닫는다. 세상은 살아 숨 쉬며 변화하고 그 세상이 인간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타요는 이렇게 말한다. “만약 당신이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때로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별의 움직임처럼 거의 알아차리기 힘든 것일지라도 그것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if you knew where to look, you could see it, sometimes almost imperceptible, like the motion of the stars across the sky)(95). 여기에서 타요는 오로지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과학만이 옳다는 오만한 관점을 벗어나 세상을 보면 그동안 인간이 간과했던 것, 즉 살아 움직이는 세상의 사물과 동물의 응시를 느끼며 그 타자의 존재를 깨닫고 함께 호흡할 수 있음을 말한다. 작품의 후반부에 타요가 조사이어 외삼촌의 접박이소 때를 구해내던 때 퓨마의 응시(gaze)와 맞닥뜨리며 퓨마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이는 타자임을 말하는 것은 이런 자각에 기초한 것이다.

“퓨마.” 그가 속삭였다. “퓨마, 숨 쉴 때마다 너는 네 모습으로 되어가는구나. 너의 실체는 이 대지, 하늘과 함께 변화해가는구나.” 퓨마는 눈을 깜박거렸다. 어떤 두려움도 없었다. 퓨마는 그를 응시했다….

“Mountain lion,” he whispered, “mountain lion, becoming what

you are with each breath, your substance changing with the earth and the sky.” The mountain lion blinked his eyes; there was no fear. He [the mountain lion] gazed at him… (196)

인간의 시선을 초과하는 타자의 응시에 대한 실코의 스토리텔링은 데리다가 고양이와 같은 응시를 통해 드러내는 포스트휴머니스트적 사고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어느 날 데리다는 나체가 된 자신을 고양이가 응시하는 것을 보고 당혹감을 느낀다. 이 “동물의 집요한 응시”(the insistent gaze of the animal)(“The Animal” 372)에 사로잡힌 데리다는 “따라서 나는 누구인가?”(Who am I therefore?)(“The Animal”374) 질문한다. 그리고 데리다는 “동물 이후에 (동물을 따라) 존재하는 나”(I who am (following) after it [the animal])를 발견한다(“The Animal”380). 왜냐하면 데리다가 보기에, 나는 오직 다른 동물들, 다른 생명체를 통해서만 그리고 그 안에서만 내 자신이 되고 자기-의식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동물-타자의 응시 없이는 인간이 자족적으로 인간주체로서 설 수 없는 것이다(Calarco 121-26). 데리다는 고양이와 같은 동물의 응시 아래 주체가 전적으로 별거벗은 상태로 노출되는 순간이 “인간의 심각한 한계”(the abyssal limit of the human)(“The Animal” 381), 취약성(vulnerability), 유한성(finitude)을 상기시킨다는 것을 느낀다. 여기에서 데리다는 동물-타자와 인간 주체가 함께 봉착하는 결핍, 유한성의 인식 속에서 동물-타자와의 교감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실코와 현대의 포스트휴머니스트적 사유와의 교차는 인간/동물의 “사이-존재”(in-between)에 대한 재현에서도 역시 잘 나타난다. 인간/동물의 사이-존재에 대한 포스트휴머니스트적 사유는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의 ‘호모 사케르’(homo sacer), 혹은 ‘헐벗은 생명’(bare life) 개념에서 잘 드러나는데, 그에 따르면, ‘호모 사케르’는 법의 질서 내부에 포함되면서도 배제되어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이다. 호모 사케르는 누군가가 그를 죽여도 살인자가 처벌받지 않기에 법의 외부에 있다(*Homo Sacer* 73).⁷⁾ 동시에 이 존재는 그를 배제하고 추방한 주권의 권력과 특수한 관계 속에서 포획된다(*Homo*

7) 호모 사케르는 희생자로 이용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인간의 법이 아닌 신성한 법의 측면에서도 법의 외부에 있다.

Sacer 83). 이 “포함적 배제”(inclusive exclusion)(*Homo Sacer* 8), 혹은 “배제적 포함”(exclusive inclusion)(*Homo Sacer* 21)의 역설을 지닌 호모 사케르는 집과 도시 중간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거주하는 중간자로서 (*Homo Sacer* 90), ‘헐벗은 생명’이며 ‘늑대인간’(Werewolf)이다. 아감벤에 따르면, 늑대인간은 “인간과 동물의 괴물적 혼종”(a monstrous hybrid of human and animal)(*Homo Sacer* 106)으로서 도시에서 추방된 자였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예외’의 폭력에 의존하는 근본적 취약성을 아감벤이 지적 하듯이, 호모 사케르에 대한 논의에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규정이 인간/동물의 괴물적, 혼종적 존재(늑대인간)라는 ‘예외’에 의존하는 취약성을 띠고 있음을 본다. 인간은 인간으로 서기 위해, 이 예외적 존재를 비교의 대상으로서 끊임없이 인간의 곁에 두면서—아감벤의 표현으로 ‘포함’(inclusion)하면서, 그 대상을 폭력적으로 억압—아감벤의 표현으로 ‘배제’(exclusion)—해야만 하기에, 예외적 존재로서의 늑대인간(호모 사케르, 헐벗은 생명)은 ‘인간’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 된다.⁸⁾ 여기에서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의 구축을 위해 인간과 예외적 존재의 구분불가능성이 “은폐된 상태로 남아 있도록 해야”(had to remain hidden)(*Homo Sacer* 37)한다. 만약 이 예외적 존재인 늑대인간을 적극적으로 귀환시켜 포용하면 인간중심주의는 위기에 빠진다. 왜냐하면 인간이 지우려 했던 흔적으로서의 늑대인간은 인간중심주의의 결함과 실패를 입증하기 때문이다. 아감벤은 “인류학적 기계”(anthropological machine)⁹⁾라는 용어를 통해, 인간이 인간과 동물의 중간적 존재, ‘잃어버린 고리’(missing link), 혹은 인간이 아닌 인간을 만들어 이 대상—예컨대 야만인, 노예, 유대인 등—을 “인간 이하의”(sub-human) 타자로 비하하면서 “인간”의 정체성을 확보해왔음을 지적한다(*The Open* 37-38).

8) 전소영도 인간의 권리를 구축하는 방법으로서 인간이 ‘호모 사케르’를 만들어내고 그 인간이 그 영역(인간과 동물의 구분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환원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는 점에 주목함으로써, 인간과 동물간의 구별에 기초해야 인간의 ‘권리’가 가능해지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한다(84).

9) 아감벤이 말하는 “인류학적 기계”는 인간/동물이라는 차별적이고 위계질서에 기초한 대립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비인간화된(dehumanized) 동물적 타자를 반복해 생산하는 체제를 일컫는다. 이 기계는 인간/동물을 구분하는 다양한 과학적, 철학적 담론에 작동하는 상징적이고 물질적인 메커니즘이다(Calarco 92).

그렇다면, 인간이 인간으로 서기 위해 인간 내부에서 자신의 것이 아니고 부인했던 동물성을 구현하는 이 ‘늑대인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실코는 이 배제된, 인간 내부의 동물성을 인간이 다시 자신의 것으로 포용함으로써, 폭력에 기반을 둔 인간/동물의 위계적 대립구도를 심문하고 그것을 해체해야 하는 윤리를 이야기한다. 『의식』에서 “슈시”(Shush)는 베토니(Betonic)의 말에 따르면 꿈을 뜻한다(128). 그는 ‘인간’과 ‘동물’의 범주로 경계 지을 수 없고 정의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는 타요을 만났을 때 15세 혹은 16세쯤 되어 보이는 소년인데, 어릴 적 가족들과 함께 플루티드 록(Fluted Rock) 근처의 산으로 가다 가족들과 헤어져 길을 잃는다. 가족들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까지 찾아 나서서 마침내 “소년의 작은 발자국들이 꿈이 다니는 길목의 곰발자국들과 뒤섞여 있는”(his little footprints were mixed in with bear track) 것을 발견한다(129; *Storyteller* 208). 여기에서 소년은 인간이라는 범주의 경계를 넘어 꿈의 경계 안으로 들어가 인간/꿈의 이분법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사이-존재”(in-between)—아감벤이 말하는 ‘늑대인간’(Werewolf)과 같은 존재—가 되어가는 것을 보여준다. 아이의 가족들은 주술사 베토니에게 도움을 구해 그가 힘겹게 소년을 다시 가족들에게 데려다준다. 그런데 이 아이는 여전히 곰처럼 행동하며 곰/인간의 “중간지점”(in between)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인간세계에 적응할 수 없게 된다.

그들은 쉽게 그를 되돌릴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영원히 *사이의* 공간에 있으면서
아마도 그렇게 죽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 아이를 불러야만 했다.
주술사는 차츰 차츰
그 아이를 되돌려 놓았다.

그래서, 오래 전
그들은 그 아이를 되찾았다.

하지만 그는 그 이후로
예전과 같지 않았고,
다른 아이들과 같지 않았다.

They couldn't simply take him back
because he would be *in between* forever
and probably he would die.

They had to call him
step by step the medicine man
brought the child back.

So, long time ago
they got him back again
but he wasn't quite the same
after that
not like the other children.

(130; *Storyteller* 209, 강조는 필자의 것)

늑대에게 키워져 자란 늑대소년처럼, 곰에게서 양육된 슈시는 혼종성을 띤 “사이-존재”이다. 많은 인간은 이 혼종적 괴물을 두려워하지만, 베토니는 타요에게 그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베토니의 사고는 인간과 동물의 친화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인간과 동물의 사이-존재에 대한 현대의 필요성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베토니는 동물-타자에 대한 현대라는 윤리적 요구를 이야기하는 실코의 목소리를 갖는다.

더불어 베토니는 인간/동물의 위계적 대립구도에 기초한 인간중심주의를 탈중심화시키는 포스트휴머니스트적 목소리를 드러낸다. 그에 따르면, 슈시가 곰과 갈아진 것은 일종의 “변화하기”(the changing), “되어가기”(the becoming)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는 타요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전환의 문제이다, 알겠니. 변화하는 것, *되어가는* 것은 아주 면밀하게 보살펴져야 한다”(It is a matter of transition, you see; the changing, the *becoming*

must be cared for closely)(130, 강조는 필자의 것). 여기에서 베토니가 강조하는 슈시의 “되어가기”(becoming)는 인간/동물의 대립구조를 해체시킨다. 아감벤은 호모 사케르, 혈벗은 생명, 늑대인간이 인간/동물, 자연/문화의 구분이 불가능한, “계속적인 변환”(continuous transition)(*Homo Sacer* 109)의 영역이라고 지적하는데, 그의 이런 논의는 바로 베토니 노인의 사고와 다르지 않다.

인간과 동물의 관계 속에서 “되어가기”(becoming)의 문제에 대한 주술사 베토니의 세계관은 질 들뢰즈(Gilles Deleuze)와 펠릭스 가타리(Félix Guattari)의 “동물되기”(becoming-animal) 개념으로도 역시 적절히 조명될 수 있다. 칼라코에 따르면, 들뢰즈와 가타리는 “동물되기”가 형이상학적 휴머니즘과 인간중심주의를 해체시키는 데 필요한 순간이라고 간주한다.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의 관점과는 다른 것과 조우하고 그것으로부터 사고되어질 때 효과적으로 도전을 받게 된다(Calarco 41). 들뢰즈와 가타리가 말하는 ‘동물’은 인간에게 친숙하지 않으며 전통적인 분류(classification)와 구조(structure)를 와해시키는 것으로서 “악마적”(demonic)(*A Thousand Plateaus* 241)이다. 이 동물들은 어떤 본질적인 장소에 정착하지 않으며, 적당함(propriety)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변형적 되기를 통해 살아가고 움직인다(Calarco 42). ‘동물되기’는 실제로 인간이 동물이 되는 것으로서의 모방이나 동일시라기보다 (*A Thousand Plateaus* 237, 239), “인간이 아닌 관점과 대면함으로써 인간이 변화되는 문제”(a matter of being transformed by an encounter with nonhuman perspectives)를 의미하며, 인간/동물로 확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던 것들 간의 “공생, 공감, 연대, 그리고 전염”(symbiosis, affect, alliance, and contagion)이다(Calarco 42). 베토니에 따르면, 곰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곰 친척과 다르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다”(They are... not conscious of being different from their bear relatives)(*Ceremony* 131). 이런 동물되기의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중심주의에 기초한 인간/동물의 이분법적 위계질서가 와해되는 것을 목격하며, 인간과 동물 상호간의 공감과 공조, 그리고 공생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결국, 『의식』에서 베토니가 아감벤의 용어로 “혈벗은 생명,” “늑대인간”

같은 존재인 슈시를 포용하는 것은 “인류학적 기계”를 중지시키는 윤리적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런 윤리적 행위는 인간중심주의가 빚는 여러 부작용, 예컨대 동물에 대한 폭력 뿐 아니라, 백인이 유색인과 혼혈인에 동물성을 부여해서 일종의 “늑대인간”으로 만들며 그들을 야만인(the barbarian)으로 비하하고 억압하는 식민주의적, 인종주의적 폭력까지 근절시킬 수 있는 중요한 포스트휴머니스트적 실천이다. 이런 윤리적 사유와 포스트휴머니스트적 실천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실코의 스토리텔링의 중요한 일부이다.

IV. 인간의 구원자로서의 동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실코의 스토리텔링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인간과 동물의 사이-존재, 혹은 동물이라는 타자(미약한 동물)가 인간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실코가 제시한다는 점이다. 『의식』에서 슈시라는 사이-존재는 인간과 동물의 공존, 조화, 경계없음을 회복할 비전을 가진 존재로 그려진다. 슈시는 동물(자연)과 인간의 ‘잃어버린 고리’(missing link)를 구현하는데, 베토니는 그런 그가 동물(자연)과 인간의 친화성, 조화, 균형을 상실한 인간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지녔음을 주지한 것이다. 따라서 주술사 베토니는 곰/인간의 사이-존재인 슈시를 환대하여 그가 지닌 힘으로부터 도움을 구하고자 하기에 그를 자신의 “조력자”(helper)로 삼는다(128). 실코는 사이-존재 혹은 동물-타자가 결코 열등하거나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구원하는 자일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다.¹⁰⁾

동물이 인간의 구원자가 되는 이야기는 가뭄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벌새와 파리의 이야기에서도 반복된다. 간단히 말해, 이 이야기는 미약한 존재인 벌새와 파리가 가뭄으로 인해 피폐해진 인간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

10) 사악한 도박꾼이기도 한 크코요(Ck'oyo) 마술사 때문에 가뭄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거미여인(Spider Woman)의 이야기(Ceremony 170-76; *Storyteller* 161-69), 사악한 일을 일삼는 쿠니디아 사람들(the Kunideeyah clan)과 어울리는 아내로부터 남편의 목숨을 건져주는 거미여인의 이야기(*Storyteller* 140-54)도 모두 인간/동물의 사이-존재인 거미여인이 인간의 구원자가 되는 스토리들이다.

말뚝가리, 애벌레, 어머니를 찾아다니며 각고의 노력을 한다는 내용이다. 실코는 동물계(*Animalia*)에 속하는 생명인 이 벌새와 파리가 그동안 이들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로 여겨졌던 인간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제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물이 인간을 구원해주는 스토리는 서구 백인의 관점에서 보면 한낱 “미신”(superstition)(*Ceremony* 94)에 불과하다. 타요는 인디언 보호구역의 학교에서 백인 선생님이 과학을 가르치면서 왜 인디언들 사이에서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미신인지 설명해주었던 일을 기억해낸다. 타요도 한 때 과학을 신봉하며 인디언들의 이야기들을 더 이상 믿을 이유가 없다고 여겼다. 그러나 그의 할머니는 태곳적으로는 동물이 인간에게 말을 걸고 그것을 인간이 이해하던 때가 있었다고 말한다. 나중에 그는 그런 할머니의 말을 되뇌며 그 말이 진실이라고 여기게 된다(*Ceremony* 95). 그리고 그는 북미원주민의 스토리에서 동물의 고통에 반응하며 같이 아파하는 마음을 배우고, 역시 인간의 고통에 동물도 반응하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상호소통과 사랑을 배운다.

벌새와 파리의 이야기에서 가뭄에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도와준 파리는 특히 서구백인들의 과학적 담론에서는 인간에게 하등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불결하기 짝이 없는 미물로 간주된다. 한 때 타요도 전쟁터에서 록키의 시체를 뒤덮는 이 더러운 생명체를 무척 증오하기도 했다(*Ceremony* 102). 그리고 그는 쿠베로(Cubero)의 한 카페에서 파리들이 문 밖에 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어렸을 적 그가 부엌에서 파리체로 파리를 죽였던 기억을 떠올린다. 타요는 외삼촌을 향해 죽은 파리 더미를 자랑스럽게 가리켰고, 조사이어는 그것을 보며 고개를 내저었다. 타요는 인디언 보호구역의 선생님이 파리는 나쁘고 병을 옮긴다고 가르쳤음을 말하지만, 조사이어는 앞에서 언급한 벌새와 파리 이야기를 들려준다(*Ceremony* 101). 타요는 조사이어가 들려주며 기억을 당부하는 이런 북미원주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미물처럼 보이며 인간에게 해로운 동물마저도 거대한 세상에서 인간과 하나의 연대를 형성하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타요는 가뭄으로 메마른 땅 위를 날아가는 녹색 벌새 한 마리를 보면서, 저 벌새가 이 땅을 버리지 않는 한, 어딘가에 여전히 살아 숨 쉬는 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Ceremony 95-96). 즉, 타요는 별새가 이 땅을 지켜 주는 한, 비록 현재는 가뭄으로 메말랐지만 이 대지의 생명력은 여전할 것이며 다시 살아날 것이라 믿는다. 이처럼 실코는 미물 같은 존재가 인간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는 희망을 주는 구원자의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 동물-타자를 항상 인간보다 열등한 것으로 간주해온 서구의 인간중심주의를 심문한다. 그리고 동물을 구원자로 그리는 실코는 동물중심주의라는 또 다른 “중심주의”(centrism)를 반복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동안 미약한 존재라고 무시했던 동물에게서 구원을 받는 인간은 “나약한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다. 데리다의 포스트휴머니스트적 사유와 다르지 않게, 실코의 스토리텔링은 인간이 동물처럼 취약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자각에서 동물-타자와의 공감을 윤리적 실천으로서 요구한다. 실코의 스토리를 듣고 읽는 독자는 이런 자각을 통해, 인간주체의 결핍과 동물-타자의 결핍을 인정하는 가운데, 동물-타자에 대한 이해와 상호간의 공감, 사랑의 가능성을 본다.

V. 결론

『의식』과 『스토리텔러』에서 동물-타자를 어떻게 재현하는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실코의 스토리텔링은 인간과 동물의 존재의 문제, 그리고 인간이 동물을 대하는 윤리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휴머니즘의 전통이 낳은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설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코의 스토리텔링이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적 재고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은 강조되어야 하는데, 그 까닭은 이미 케어리 울프가 지적했듯이 휴머니즘에서 찬미되었던 가치와 열망이 그것들을 성취하기 위해 동원된 철학적, 윤리적 논거들이 유발한 많은 문제점들—예컨대 동물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의해 그 의미가 퇴색되는 점을 잊어서 안되기 때문이다(What Is Posthumanism? xvi-xvii). 또한 우리는 이 글에서 실코의 스토리텔링이 동물-타자의 문제와 관련해서 현대의 포스트휴머니스트적 사유들, 즉 데리다, 아감벤, 들뢰즈가 제시하는 철학적 사유들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인식의 지평을 확장시켜주는 실코의 스토리텔링이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다시 독자들의 입에서 이야기될 필요가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실코의 스토리텔링의 민족적(ethnic), 역사적, 문화적 바탕이 되는 북미원주민들의 스토리는 세계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동물에 대한 이들의 인식과 감성을 반영하는데, 이 스토리들은 비합리적이어서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져야 할 것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의 교감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기에 오히려 시대와 지역을 넘어서 더 새롭게 다시 이야기되어야 할 모두의 문화적 자산이자 삶, 그리고 미래의 비전인 것이다. 북미원주민의 구술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실코의 스토리들에서 제기되는 반성의 요구, 즉 인간중심주의에 기초해 규범적 주체성(normative subjectivity)을 구축하기 위해 인간/동물의 이분법적 위계 질서를 만들고 동물에게 폭력을 행사해온 것에 대한 반성의 요구는 동물을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fellow creatures)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인식적, 윤리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동물-타자에 대한 실코의 스토리텔링은 포스트휴머니스트적 윤리-정치성을 지니며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고 교감하는 미래를 연다.

❖ 참고 문헌

- 김호연, 「역사리텔링과 상흔의 치유: 구술사 활용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21, 2012.
- 박서현, 「하이데거에 있어서 ‘죽음’의 의의」, 『철학』 109, 2011.
- 이민용, 「서사 스토리의 핵심 요소와 스토리텔링 치료: 강박증 치료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 52, 2011.
- 전소영, 『동물이라는 타자: 쿛시의 공감적 상상력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2010.
- AGAMBEN, Giorgio.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Trans. Daniel Heller-Roazen.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P, 1998.
- _____. *The Open: Man and Animal*. Trans. Kevin Attell.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P, 2004.
- BARNETT, Louise K., and James L. Thorson. Introduction. *Leslie Marmon Silko: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Louise K. Barnett and James L. Thorson. Albuquerque: U of New Mexico P, 1999. 1-12.
- BEARDSWORTH, Richard. *Derrida and the Political*. London: Routledge, 1996.
- BEIDLER, Peter G. “Animals and Theme in ‘Ceremony.’” *American Indian Quarterly* 5.1 (1979): 13-18.
- BENJAMIN, Walter. “The Storyteller: Reflections on the Works of Nikolai Leskov.” *Illuminations*. Ed. Hannah Arendt. Trans. Harry Zohn. New York: Schocken Books, 1968. 83-109.
- BENTHAM, Jeremy.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1789. Oxford: Clarendon Press, 1879.
- CALARCO, Matthew. *Zoographies: The Question of the Animal from Heidegger to Derrida*. New York: Columbia UP, 2008.
- CARRUTHERS, Peter. *The Animals Issue: Moral Theory in Practice*. Cambridge: Cambridge UP, 1992.
- DELEUZE, Gilles, and Félix Guattari.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Trans. Brian Massumi. Minneapolis and London: U of Minnesota P, 1987.
- DERRIDA, Jacques. *Aporias: Dying—Awaiting (One Another at) “the Limits of Truth.”* Trans. Thomas Dutoit.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P, 1993.
- _____. “Force of Law: The ‘Mystical Foundation of Authority.’” *Deconstruction*

- and the Possibility of Justice. Ed. Drucilla Cornell, Michel Rosenfeld, and David Gray Carlson.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1992. 3-67.
- _____. "Geschlecht II: Heidegger's Hand." *Deconstruction and Philosophy: The Texts of Jacques Derrida*. Ed. John Sallis. Chicago and London: U of Chicago P, 1987. 161-96.
- _____. *Of Spirit: Heidegger and the Question*. Trans. Geoffrey Bennington and Rachel Bowlby. Chicago and London: U of Chicago P, 1989.
- _____. "The Animal That Therefore I Am (More to Follow)." *Critical Inquiry* 28.2 (Winter 2002): 369-418.
- _____. "Violence against Animals." *For What Tomorrow....* Trans. Jeff Fort.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P, 2004. 62-76.
- DESCARTES, René. *Discourse on the Method*. 1637. In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Descartes*. Trans. John Cottingham, Robert Stoothoff, and Dugald Murdoch. Vol. I. Cambridge: Cambridge UP, 1985. 111-51.
- HEIDEGGER, Martin. *What Is Called Thinking?* Trans. J. Glenn Gray. New York: HarperCollins, 1976.
- HUDSON, Brian K. "Introduction: First Beings in American Indian Literatures." *Studies in American Indian Literatures* 25.4 (2013): 3-10.
- KELLEY, Robin D.G. "A Poetics of Anticolonialism." In *Discourse on Colonialism* by Aimé Césaire.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2000. 7-28.
- LAWLOR, Leonard. *This is Not Sufficient: An Essay on Animality and Human Nature in Derrida*. New York: Columbia UP, 2007.
- LINCOLN, Kenneth. *Native American Renaissance*. Berkeley, Los Angeles: U of California P, 1983.
- SCHORCHT, Blanca. *Storied Voices in Native American Texts: Harry Robinson, Thomas King, James Welch and Leslie Marmon Silko*.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03.
- SILKO, Leslie Marmon. *Ceremony*. New York, Penguin Books, 1977.
- _____. *Storyteller*. New York: Arcade Publishing, 1981.
- TAYLOR, Paul Beekman. "Repetition as Cure in Native American Story: Silko's *Ceremony* and Momaday's *The American Child*." Ed. Andreas Fisher. Germany: Gunter Narr Verlag Tübingen, 1994. 221-42.
- The Surrealist Group of France. "Murderous Humanitarianism." <http://archives>.

econ.utah.edu/archives/marxism/2002w44/msg00050.html. Web.02.25.2014.

VIZENOR, Gerald. "Authored Animals: Creature Tropes in Native American Fiction." *Social Research* 62.3 (1995): 661-83.

WOLFE, Cary. "Flesh and Finitude: Thinking Animals in (Post)Humanist Philosophy." *SubStance* 37.3 (2008): 8-36.

_____. *What Is Posthumanism?* Minneapolis and London: U of Minnesota P, 2010.

WOMACK, Craig. "There is No Respectful Way to Kill an Animal." *Studies in American Indian Literature* 25.4 (2013): 11-27.

❖ ABSTRACT

The Posthumanist Ethico-politicality in Silko's Storytelling of the Animal-Other

Jin Man Jeong

This essay explores how Leslie Marmon Silko's *Ceremony* and *Storyteller* encourage human's sympathetic relationship with the nonhuman animal-Other, paying attention to her posthumanist voices against anthropocentric mistreatment of animals which is inseparable from white Americans' environmental and racio-ethnic subjugation of nature and Natives in the colonialist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s a way of dissolving the problematic anthropocentrism and embracing the animal-Other as a fellow creature, Silko employs and transforms Native American oral tradition in her own idiosyncratic posthumanist storytelling. In order to highlight the ethico-political examination of the animal issue in her storytelling, this essay refers to contemporary posthumanist thinkers such as Jacques Derrida, Giorgio Agamben, and Gilles Deleuze who are all in their own ways critically engaged with Western metaphysical anthropocentrism. Arguably, in a similar vein with the posthumanist critics, Silko disrupts the mischievous hierarchical opposition of humans/animals that have directly or obliquely warranted violence against the animal-Other. In order to demonstrate Silko's ethico-politicality concerning the animal issue, this essay inquires her critical perception of humans' misunderstanding (or misbehavior) toward animals in terms of the suffering and death of animals. Besides, Silko's posthumanist storytelling of the animal's gaze (as Derrida notes as an event of revealing human aporia and vulnerability) and "in-between" (as a reification of crossing the boundary of humans/animals) is discussed with the exemplification of Tayo's encounter with a mountain lion and a bear-man Shush. The posthumanist approach to thinking about the animal-Other in *Ceremony* and *Storyteller* would shed light on the ethico-political significances of Silko's storytelling in our time in peril of losing the tie between humans and nonhuman animals.

Key Words

실코, 스토리텔링, 포스트휴머니즘, 동물, 공감

Silko, storytelling, posthumanism, animal, sympathy

논문접수일: 2014. 04. 28

심사완료일: 2014. 06. 09

게재확정일: 2014. 06. 13